

마태복음 성경공부 - 제 61 회

5 부. 24:1-28:20.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가올 미래

I.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관한 가르침 (24:1-25:46)

2. 이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들 (24:15-28)

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의 질문에 계속하여 대답으로 말씀하셨다. 이미 24:1-14 에서 밝히셨지만, 여기서는 세상의 마지막 때를 고려하여 예언하셨다. 마지막 때에, 즉 자신의 재림 직전에 제자들이 겪을 극심한 고난과 대 환난을 언급하셨다. 예루살렘의 곧 다가 올 함락은 그 재림에 대한 예언의 단초가 될 것이라 설명해 주셨다. 이러한 예언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루어 질 것이기에, 모든 제자들은 (21 세기에 사는 우리들 포함)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을 성경전체의 맥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.

1)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몰락과 성전의 더럽혀짐, 그리고 그 사건들이 자신의 재림에 전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한 예표됨을 예언하셨다. 다니엘 9:27; 11:31; 12:11 에서 우리는 “황폐”라는 단어가 예루살렘에 장차 일어 날 사건들에 관한 예언임을 알게 되었다. 또한 다니엘 11:31 과 12:11 에서 “가증한 것” 또한 같은 사건들에 대한 것임을 예수님의 인용하신 예언으로 인해 알게 되었다.

2) 구약 성경에서 “가증한 것”은 주로 우상이나 우상의 모양을 한 물체를 뜻한다 (이사야 66:3; 열왕기상 11:5,7; 열왕기하 23:13,24). 따라서 다니엘 11:31 과 12:11 에서 “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”은 그 가증한 것(들)이 가져올 결과를 설명해 주고 있다. 황폐함을 초래할 가증한 것(들)이 거룩한 곳에 (성전에) 세워질 때, 그 성전은 결국 황폐해 지고 그 어느 유대인도 야훼께 대한 제사의 장소로 그곳을 찾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:

(1) 성전 뜰에 있는 번제 희생 제단 위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(주전 175-164) 제우스 신에 대한 희생 제물 제단을 세움으로써 다니엘 예언의 그 첫 번째 성취가 이루어졌었다.

(2)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그러하듯이 다니엘의 이 예언들 또한 “황폐케 할 가증한 것(들)”에 대한 사건들이 여러 번에 걸쳐 여러 세대에서 성취될 예루살렘의 함락과 멸망에 따른 성전의 더럽혀짐이라고 이해함이 타당한 해석이다. 물론 이 예언의 세 번째 즉 마지막 성취는 실제적인 성전이나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, 영적으로 새 예루살렘이요, 성전이기도 한 성도를 뜻할 것임 또한 타당한 해석이 되겠다.

(3) 여기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다니엘 예언의 두 번째 성취가 곧 다가 올 로마 군대에 의해서 저질러 질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멸망이라고 먼저 언급하셨다 (다니엘 11:31; 12:11. 참조 9:27). 물론 “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” 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. 마치 특별한 우상이 세워질 것처럼 그 성취를 뜻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. 로마 군대가 가지고 다니는 “황제가 살아 있는 신”이라는 깃발 또한 그 성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니엘의 예언들 (11:31; 12:11)이 성취되는 사실에 자체에 집중하여 주의하라고 그들의 질문에 따른 대답으로 말씀하신 것이다.

(4) 다니엘 예언들의 마지막 (세 번째) 성취를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며 예언하셨다. 데살로니가 후서 2:4 에서 언급한 적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 예언이다. 그가 “하나님같이 자신을 보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, 하느니라”. 이미 24:3 절에서 언급하셨듯이 예수님께서서는 다니엘의 예언이 곧 다가 올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황폐함을 뜻하시면서도,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임을 강조하신 것이다. 즉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그 가증한 모습과 언행으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 날 종말의 주요 3 가지 징조들의 하나로 등장하며 행동할 것을 예언하신 것이기도 하다.

3)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주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특히 이러한 징조를 보고 대비하라고 경고하신 것이다. 그들이 제일 먼저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따른 첫 희생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. 따라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경고를 미리 알려 주셨다. 당연히 제자들 이야말로 다가 올 사건들에서 가장 크게 사탄에 의한 사람들의 자신들에 대한 증오와 핍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.

4) 24:21-28 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온 세상에 일어 날, 특히 자신의 제자들에게 온 세계적으로 닥칠 고난, 즉 대 환난을 언급하시며 준비하며 주의하라고 경고하신다. 요엘 2:2 과 다니엘 12:1 의 내용을 부분적으로나마 차용하신 이유이기도 하다. 물론 구체적으로 그 대환난이 무엇인지를 밝히시지를 않으셨다. 하지만 온 세계적으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일어 날 환난임을 밝히셨다:

(1) 먼저 종말에는 온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아주 뻔뻔스런 거짓들이 횡행할 것을 예언하셨다.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하며,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들과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많은 성도를 미혹에 빠트리려 할 것을 예언하셨다 (참조. 데살로니가 후서 2:9-10).

(2)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사 자신의 택자들을 (성도를) 위해 그 대환난의 시간을 줄이실 것이다. 이 기간에 대해서는 요한 계시록 11:7-9; 20:3b; 7-9a 에서도 밝히고 있다. 이 전례가 없는 온 세상에 다가 올 성도들에 대한 대 환난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택자들에 대한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.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서는 21 세기를 사는 우리들까지 포함하여 전 세대에 걸쳐 자신의 제자들 모두에게 이러한 대 환난을 경고하시며 미리 준비하고 맞으라고 예언해 주셨다.

(3) 28 절은 모든 우주의 심판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불신자들에게 갑자기 임할 것을 잘 묘사한다.

생각할 점:

예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그분의 제자들이 박해를 당할 때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가 무엇일까?